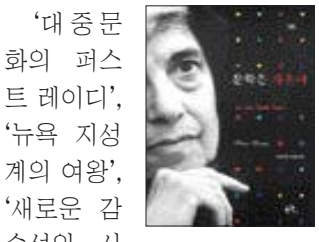


북스

Books

수잔 손택 유고 평론집

'문학은 자유다' 출간



'대중 문화의 퍼스트 레이디'...

이번 책은 '아름다움에 대하여' 등 문학평론과 '9·11', '타인의 고문에 대하여' 등 미국의 야만성을 고발한 정치 비평을 실고 있다.

또 예루살렘 수상 연설인 '말의 양상'을 비롯해 '용기와 저항' '문학은 자유다' 등 격정적인 연설문도 실었다.

수잔 손택은 미국 최고의 에세이 작가이자 소설가, 평론가로 활동했으며 '사건에 관하여', '미국에서' 등의 책을 출간했다.

〈이후·1만6천5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그림 값에 숨겨진 미술 시장의 연금술

이 그림은 왜 비쌀까

피로사카 도시 지음

외신을 타고 들려오는 문화계 소식 중 대표적인 게 유명 그림의 경매 최고가 갱신 소식이다. 특히 2005년은 세계 경매 신기록이 15번이나 무너지는 경이적인 기록의 해였다.

가장 화제가 되는 건 역시 '작품 가격'이다. 고흐의 '해바라기' 등은 물론이고, 동물의 사체를 박제해 놓은 데미옌 허스트 작품 등 '이게 미술이 맞나' 싶은 작품들까지 전문학적인 액수로 거래되는 걸 보면 '가격'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

미술사 전공자인 피로사카 도시가 쓴 '이 그림은 왜 비쌀까'는 '예술과 돈, 종교적인 경건함과 세속적 투기, 경제 신기록과 미술가의 빈곤이 서로 만나는' 미술시장의 탐색을 통해 미술작품 가격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책이다.

저자는 미술 시장을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험란하게 빛을 발하는 곳이자 거래되는 물건이 가치기 다른 어떤 곳보다 불안한 곳으로 정의하고 미술사에서 찾아낸 다양한 예와 경제학·사회학·인류학·심리학을 동원, 시장을 지배하는 운영 원리 등을 알기 쉽게 분석한다.

저자는 '수집가-고상한 미술품 뒤에 감추어진 욕망', '화상-장려자이거나 혹은 투기꾼이거나', '미술가-신화에서 상품으로', '미술작품-원본에 대한 깨지지 않은 모방' 등 미술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세 부류의 집단과 미술 시장의 핵인 '미술품'을 통해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우선 미술가들에 관한 이야기. 저자에 따르면 한 미술가의 능력이냐 재능, 혹은 미래에 대한 전망이



그의 미술품 가격을 우선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미술 체계가 만들어진 '신화'가 작품의 가치 판단의 척도가 되고 그 중심에 '빈센트 반 고흐'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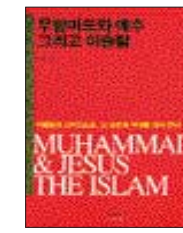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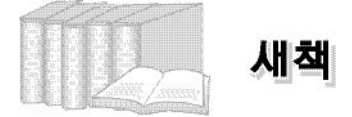
미쳤고, 사랑에 실패했고, 살아 생전 미술가로도 성공하지 못했던 고흐는 미술가 승배의 추종자들에게 회화 이상의 것을 창조한 사람으로 인식된다.

중앙을 향해 기울어진 작업실 풍경을 그린 작품은 그의 광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그 방은 실제로 천장이 기울어져 있었고 고흐는 '있는 그대로 묘사했을 뿐'이라는 증언이 있었음에도 그의 신화는 사그라들지 않았고, 1987년 '해바라기'는 3천990만달러에 일본인에게 팔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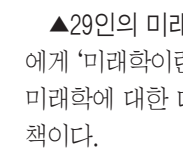
저자는 미술품이 소유자를 사회적 엘리트의 일원으로 드러내주고, 소유자의 부와 취향을 재는 척도가 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수집가들의 다양한 얼굴을 보여준다.

또 단순히 그림을 사고 파는 장사꾼을 넘어 예술의 수요자를 자임하고 있는 화상(畫商)들에 얽힌 이야기도 들려준다. 기업과 미술관의 은밀한 거래, 르네상스의 밀바탕을 만든 메디치가가 열광적으로 예술품을 수집한 사연 등이 대표적이다.

책은 그밖에 영화 '진주 귀고리를 한 소녀'를 통해 '팝스타'같은 인기를 얻게 된 베르메르가 사후 200년 만에 재발견된 이야기, '예술품의 대표 아이콘'이 된 '모나리자'에 얽힌 사연, '50번째 생일이 되기 전에 공개적으로 인정을 받은 역사상 첫번째 미술가'로 최고의 협상가였던 피카소에 얽힌 이야기 등을 소개한다. 〈문지진기자 1만3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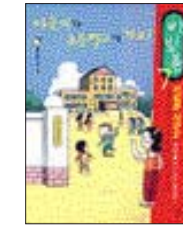
▲무함마드와 예수, 그리고 이슬람=같은 뿌리면서 다른 문화와 세계관을 갖고 있는 기독교와 이슬람의 평화적 공존을 모색한 책. 저자는 신학과 인도철학을 공부한 다원주의 성향의 신학자로 무함마드와 예수의 사상을 7가지로 선별하여 비교·고찰했다. 〈코너투스·1만8천원〉



▲29인의 미래학자가 말하는 다가오는 미래=29명의 미래학자들에게 '미래학이란 무엇이고 미래학자의 임무는 무엇인가' 등 미래와 미래학에 대한 다섯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모아 펴낸 책이다. 〈도서출판 예문·3만5천원〉



▲술취한 코끼리 길들이기=불교계 유명한 명상승 아잔 브라흐마가 마음속 다스려지지 않은 마음과 욕망을 술취한 코끼리처럼 비유, 몸과 영혼을 위해 마음속 코끼리를 붙들어 댄 수 있는 108가지 이야기를 전한다. 〈이레·1만1천원〉



▲비빔톤 7권-다우니가 초등학교에 가요=한겨레 신문에 10년째 연재되고 있는 가족만화. 8년 전 다우니가 태어났을 때부터 비빔톤을 지켜봐 온 독자라면 더욱 흥미있다. 평범한 가족의 자질양양을 따뜻하게 그려냈다. 〈문학과 지성사·1만원〉



▲일터너티브 드림=북컬, 이영도, 두나, 오경문, 김보영, 김덕성, 이한범, 고장원, 노성래, 신운수 등 한국을 대표하는 SF 작가 10인의 개성 넘치는 작품을 엮은 단편집. 신·구세대 SF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지난 20년간 한국 SF의 흐름을 엿볼 수 있다. 〈창글미디어·1만2천원〉



▲이스탈로부터의 선물='프라하에서 길을 묻다'의 저자인 미치코 이케다의 막스 스몰을 넘긴 딸과 함께 신비의 도시 이스탈로 여행을 다녀온 뒤 그곳의 문화와 사람들을 따스한 사진과 글로 엮어냈다. 〈안그래픽스·1만5천원〉

'햄릿' '로미오와 줄리엣'을 다른 사람이 썼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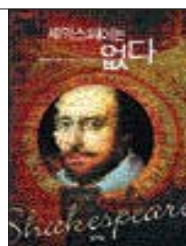
셰익스피어는 없다 버지니아 펠로스 지음

'로미오와 줄리엣' '베니스의 상인' '햄릿' '맥베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들 작품을 셰익스피어가 아닌 다른 자가 썼다면?

이런 낯선 질문에 흥미를 느낀 미국인 작가 버지니아 펠로스의 '셰익스피어는 없다'는 셰익스피어의 존재에 의문을 던진 학자, 이론가들을 추적하는 책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셰익스피어가 남긴 모든 작품을 철저한 학식을 갖춘 인물론 철학자이자 학자인 프랜시스 베이컨 뿐이라는 것이다. 역사상 가장 화려하게 영어를 구사한 작가로 평가받는 셰익스피어가 자란 위키셔 등의 지역은 영어권 사람들이 전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의 투박한 사투리를 쓰는 곳이다. 셰익스피어의 부모는 전혀 교육을 받지 않은 문맹이었고, 그 또한 서명마저 'X'로 표기할 정도였다.

또 셰익스피어가 읽었다고 전해지는 책 한 권 남았지 않으며, 당시 기본적인



문법책은 상류층에서만 소유할 수 있었다는 게 작가가 세계 최고 극작가에게 던진 의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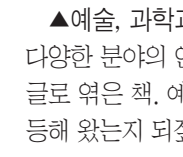
셰익스피어와 베이컨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인류에 가장 위대한 유산을 남겼지만 출생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개인사는 대부분 알려지지 않았다.

작가는 베이컨이 숨어서 셰익스피어 흉내를 내며 작품을 써야만 했던 사정을 그의 출생의 비밀에서 찾고 있다. 베이컨은 '처녀 왕' 엘리자베스 1세의 아들이지만 당시 대법관이었던 니콜라스 베이컨의 손에 키워졌다는 것이다.

베이컨은 자신의 비밀과 골목 많은 삶을 셰익스피어라는 이름으로 쓴 저작물 곳곳에 암호화해서 털어 놓았다고 추론한다. 베이컨이 남긴 행간의 암호를 해독할 수 있다는 오빌 오펜 박사의 '사이퍼 힐'을 통해 작가는 비밀을 밝힐 수 있다고 강조한다.

셰익스피어의 서로 다른 작품에서 동일한 구절이 반복되고 있고, 이런 단어를 조합하면 베이컨이 남긴 암호를 풀 수 있다는 것이다.

작가는 엘리자베스, 레스터 경, 에드워드 6세, 헨리 8세 등 당시 실존 인물들을 등장시켜 추리 소설처럼 이 같은 도발적인 주장을 풀어내고 있다. 〈노과미유·1만3천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예술, 과학과 만나다='아트센터 나비'에서 미학·과학·철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을 초청해 진행한 강연 내용을 수정·보완해 글로 엮은 책. 예술과 과학이 지난 역사 속에서 어떻게 공생하고 갈등해 왔는지 되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가 방향을 제시한다. 〈아트센터 나비·1만3천원〉



▲일본여성=고대 궁녀부터 게이샤에 이르기까지 고대 여황제들과 현대 왕실 여성들의 알려지지 않는 뒷이야기까지 일본 여성의 삶의 역사를 탐했다. 극도로 상반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일본 여성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엿볼 수 있다. 〈시그마북스·2만3천원〉



▲원종린 수필문학전집-어느 명칭이의 인생 일기 1~6권=수필가인 원종린씨가 40여 년에 걸쳐 발표한 수필들을 정리 6권으로 묶어 전집으로 발간했다. 〈학문출판사·각 1만5천원〉

대인동심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첨단월계공인중개사
★금매매★
●첨단 인근 비아동 일부지역 1000평 다세대주택, 불류창고, 북지식서비스
●첨단중심상업지역 200평, 매 280만원 (공시지가 260만원), 230평

부광공인중개사
전원주택(부지)전문업소
★금주의 추천物件★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대지/건물) 매매가

특급상가 매매·임대
북구 용봉동 부름 상가주택
대지238㎡(72평),연면적396㎡(120평)인 3층 코너 건물에 3억5천만 원입니다.

법원경매 전문회사
-물 앞시가는 사람물- (주)육선코리아
성공적 파트너 / (주)육선코리아 무료상담 권리분석, 영도 유치권내역서 및, 실권여부, 낙찰가에상부서 예고문서, 전순회 기록, 가치문, 가등기신청서 등 차별화된 상담을 기다리십시오.